

설 명절 추모 가정예배 순서

주후 2026. 2. 17(화) 아침

사회 | 담당자

묵	도	고_____를 추모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_____	다	함	께
찬	송	_____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새찬송가 559장)	_____	다	함	께
기	도	_____	_____	가	족	중
성	경	봉	독	_____	_____	_____
성	경	봉	독	_____	_____	_____
추	모	의	말	씀	_____	_____
추	모	의	말	씀	_____	_____
찬	송	_____	_____	다	함	께
추	모	사	_____	_____	_____	_____
추	모	사	_____	_____	_____	_____
기	도	_____	_____	다	함	께

성경말씀 | 마태복음 28:1-10

1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5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추모의 말씀(Message) | 예수님 무덤에서 받는 교훈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이 땅에서의 안식처인 무덤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날 그들이 이 무덤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였을까요?

1.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제자들은 무덤가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아주 뜻밖의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들의 주님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귀담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의외의 메시지로 주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주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25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그런 부활을 보증하고자 제자 나사로를 부활의 샘플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의 안식처를 찾는 우리는 이제 이 안식처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 재회의 소망을 확인하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평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레슨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평안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19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20:19 마지막 부분을 읽어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21에서도 반복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 평안의 약속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강론 모임인 다락방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33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 갈릴리의 소명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 무덤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무덤에 머물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제자들의 사역 마당이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가 소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디베랴)에서 그물이 넘치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후,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돌보라고 소명을 새롭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의 슬픔에만 빠져서 소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Life must go on) 소명도 계속되어야 합니다(Calling must go on). 부활의 찬란한 아침, 천국 문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때 우리도 우리의 소명을 다하고 왔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처음 제자들이 받았던 고귀한 교훈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고 평안의 약속을 마음에 다시 붙들고 제자들처럼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며 이제 우리 각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갈릴리로 떠날 준비를 하는 우리 지구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